

# 650년만에 열린 보물창고...유물 1만여점 만난다



어부가 건져올리며 신안선 존재를 세상에 알렸던 도자기.

## 국립광주박물관 신안선 발굴 40주년 특별전

25일~내년 1월30일  
도자기·금속품·동전 전시

목포 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 문화재 발굴 40년'전



유물이 바닷 속 모래에 묻혀 있던 상황을 재현한 모습.

1975년 신안군 증도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한 어부는 그물을 건져 올리던 중 도자기 6점을 발견한다. 약 650년간 바다 속에 잠들어 있던 '신안선'이 세상에 알려지던 순간이다.

신안선 발굴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립광주박물관과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나란히 특별전이 열린다.

국립광주박물관은 25일부터 2017년 1월30일까지 '신안해저선에서 찾아낸 것들' 특별전을 연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공동 주관한 이번 전시는 지난 7월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다. 개막에 앞서 열린 24일 전시설명회에서 신안선 유물 1만여점을 공개한다. 광주박물관 개관 이래 최대 수량을 선보이는 전시다.

입구에 설치된 신안선 모형(10분의 1 크기)이 반긴다. 무역선이었던 신안선은 길이 약 34m·폭 11m 200t 규모로, 중국 푸젠성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323년 중국 경원(현 닝보시)항을 출발해 제주도를 거쳐 일본 하카타항을 향하던 중 신안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침몰한다. 당시 배에는 약 60여명이 타고 있었다.

1부 '보물창고가 열리다'에서는 처음 어부가 건졌던 도자기를 비롯한 도자기 4500점, 동전, 금속품, 향신료 등을 소개한다. 전시장 중간에는 가로·세로 2m 규모 모래 속에 도자기를 배치해 유물 인양 당시 바다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동전과 지단목도 전시한다. 당시 배 바닥에 지단목 1000개 위로 동전 280만개(28t)를 쌓아



24일 오전 국립광주박물관에 신안선 모형이 설치되었다. 박물관은 신안선 발굴 40주년을 기념해 25일부터 2017년1월30일까지 특별전을 연다.

무게 중심을 잡았다. 지단목은 불상, 가구, 공예품 원료로, 동전은 일본에서 화폐로 사용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유물 중 최상 상품은 단연 도자기다. 대부분 중국 용천요에서 제작됐으며 일본, 동남아시아 등으로 수출됐다. 신안선 항해기간은 약 한 달반에서 두달 정도였다. 당시 선상 생활을 상상할 수 있는 계피 등 향신료, 식기류, 위급 상황시 두드렸던 징, 북도 만날 수 있다.

2부 주제는 '신안해저선의 문화기호'다. 그릇, 차, 향(香), 꽃꽂이를 비롯해 고려청자 7점을 통해 당시 중국, 일본 상류사회 문화를 선보인다. 가장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꼽히는 '정병모양 꽃병'은 당시 중국 청자 제작 기

술이 망라된 작품이다.

3부에서는 '신안선의 보물과 국립광주박물관'에 대해 이야기한다. 발굴 연표에서는 1976년부터 1984년까지 10차 발굴 상황을 정리해 설명한다. 첫 발굴 당시 해군이 투입됐지만 기술 부족으로 도굴꾼들을 불러야했던 웃지 못할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마지막 전시작은 '붉은잎무늬에 시를 쓴 점시'다. 중국 당나라 시대 공녀가 쓴 시는 '은근한 마음 붉은 잎에 실어보내니 인간 세상으로 쉬이 흘러가기를'로 끝난다. 평범한 일상을 꿈꿨지만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신안선 선원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전시를 마무리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에

서도 25일부터 2017년 1월30일까지 특별전 '대한민국 수중문화재 발굴 40년'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각지에서 수중발굴한 1000여점 유물을 3부로 나눠 소개한다. 제1부 '수중문화재 발굴의 도입기'에서는 1976년 신안선부터 1984년 완도선 발굴까지 수중고고학 탄생기의 유물을 당시 참여자 인터뷰와 함께 전시한다.

'제2부 수중문화재 발굴의 성장기'에서는 1992년 진도선 발굴을 시작으로 무안 도리포, 군산 비안도·심어동파도·야미도까지 다양한 수중발굴 현장을 살펴볼 수 있다. 또 점차 발전하는 수중발굴 장비도 볼 수 있다. 제3부는 '수중문화재 발굴의 발전기'를 주제로 학문적 발전을 조명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시·서·화의 어울림...금봉 박행보 화백 신작전

28일까지 금봉미술관

여든이 넘는 나이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금봉 박행보 화백이 '강산(江山)을 훑어보고 시(詩)를 건지다'를 주제로 28일까지 금봉미술관에서 신작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박 화백은 자작시 50여편을 수묵담채화에 담아, 시·서·화가 어울리는 문인화 작품을 공개한다. 시와 그림을 통해 자연의 신비와 정신 세계, 오묘한 조화 등을 표현했다. 작품 소재도 가을 산부터 수석, 불교 사찰 등 다양하다.

특히 소전 손재형 선생에게 서예를 사사한 박 화백은 획, 면, 점 서예 요소를 회화적으로 사용하며 작품에 자연스럽게 녹였다.

작품 '조각배'에는 넓은 강 가운데 조그만 나룻배가 등장한다. 목적이 어디인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푸른 하늘에 적힌 '아늑한 보금자리 찾아 마냥 두둥실 기술들은 눈을 뱉머리에만' 시구는 사연을 짐작하게 한다. 작품 '가을'에는 '노을 속에 흐르는 물



'동산'

소리 정겨운데 봉우리 위에 기우는 조각달'을 쓰며 서정적 분위기를 담았다.

직접적으로 마음 속 이야기를 표현하기 보다는 풍경이나 색채, 이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박 화백은 1969년부터 1977년까지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를 6회 기록했고 문화공보부장관상,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269-988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전남대병원 갤러리 강남구 작가 초대전

31일까지...회화 20여점 선봬

자연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아름다움과 존중을 작품에 담고 있는 강남구 작가가 전남대병원 CNUH갤러리에서 31일까지 초대전을 갖는다.

'자연을 향한 은밀한 서정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강 작가는 석류, 해바라기, 연꽃 등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석류'시리즈는 우연히 시골장터에서 본 붉은 석류의 강렬한 인상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다. 한알씩 밀도 있게 그려 새콤달콤한 느낌을 자연스럽게 전해준다. 흥미와 활력을 그린 '공간·생명력'은 가장자리 꽃잎을 부풀려 처리하며 중앙으로 시선을 집중시킨다. 빛을 한가득 머금고 있는 매화 꽃잎은 건강한 생명력을 전달한다.

또한 깃털을 소재로 한 '풍경'시리즈는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는 자연을 따듯하며 온화하게 표현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화두로 던지고 있다.



'석류'

조선훈 미술대학과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강씨는 개인전 28회, 초대·기획전 700여회를 가지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무등미술대전·바다

사생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미술·한국전업작가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22-509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황영성·박석규·송용·박동민·박종수·신동원·박성현·전희진·정운대

### 원로작가 9인 특별전

기간: 2016. 10. 11(화) - 11. 11(금)  
장소: 세계조각작품박물관 박물관갤러리  
☎ (062) 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DAEMYUNG RESORT

## GRAND OPENING 2016. 6. 22

### 대명리조트 신규분양 회원모집

13번째 리조트! 쉼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EQUESTRIAN	YACHT	GOLF	SKI	OCEAN WORLD	RESORT
소노벨리체 승마클럽	가제 마리나 베이	비탈디마크 대중골프장(24홀) 리프트 및 4가지 유희시설	오션월드 및 아쿠아월드	가제 신규회원 특별혜택	
주말 20%, 주중 40%	주말 회원대우, 주중 50%	주말 50%, 주중 무료	무료	주말, 선수가 주중 50% 할인, 비수기 주중 무료	대형 워터 놀이기구 50%

산토리니풍의 하얀 쉼비치 호텔&리조트 삼척과 파란 동해바다~ 황금빛 동화같은 전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척해수욕장에서 바라본 쉼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709실)

분양문의(24시간 상담 가능) 062)714-2000

포바즈 네트워크 광주점

# 김성훈한의원

www.epocrates.co.kr

두암타운사거리 ☎(062)263-8275

안면비대칭, 턱관절장애, 휘다리교정, 체형교정

NAVER 김성훈한의원 검색

Yellow ID TALK @ 포바즈광주점 친구추가 하세요.